

인터-카페 (Inter-Café)

기간: 2008년 4월 1일 - 8월 10일

총괄기획: 유승덕

주관: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후원: 안산 이주민센터, AFC(안산 이주민근로자지원센터)

인터-카페는 이주민 밀집지역인 안산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에 자리 잡은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에서 주관하고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다문화지원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9월에 설립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벌이고 있는 리트머스 공간을 축으로 지역주민(다수의 이주민과 소수의 내국인)들과의 쌍방향 소통의 시발점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 4월에 시작해서 8월까지 이어질 이 프로그램은 그리기, 사진찍기, 영화보기, 파티 벌이기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매개로 내국인과 이주민 사이에 형성된 배타적인 구분 짓기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성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인터-시네마 (Inter-Cinema)

원곡동 거리에서 주말을 보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영화관으로 국적과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영화 감상을 통하여 서로간의 '차이'와 '같음'을 발견하고 이에 관한 담소가 이루어지는 소통의 공간에서 내·외국인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룬 독립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선별하여 주말에 리트머스에서 상영하고 AFC(안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미디어 팀과의 공조로 이곳 기관에서 미디어 교육을 받는 이주민 근로자들이 손수 만든 영상작품을 리트머스에서 소개하였다.

인터-캐리커처 (Inter-Caricature)

주체(화가)와 객체(모델)의 구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기라는 방식을 통하여 이주민들과 보다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인터-카페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 원곡동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국경 없는 마을 내에 위치한 공원에서 2회에 걸쳐 실행되었다.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3d9f2bXdYTo&feature=youtu.be>

인터-뷰-인 원곡동 ((Inter-View in Wongokdong); 원곡동 1시간

동일한 시간대(2008년 6월 8일 PM:04:20-05:20)에 동일한 거리를 바라보는 다국적 참여자들의 다양한 시선이 만들어낸 사진이미지들의 차이가 한곳에 모이면 원곡동은 어떠한 모습으로 재정의 될까?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위해 한날한시에 내국인 예술가들과 이주민 참여자 18명이 카메라를 들고 원곡동의 이미지를 스케치 했다. 다수의 참여자들이 디카를 사용하여 비오는 원곡동의 이미지를 스케치하는 동안 AFC(안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미디어교육을 받는 분들은 자국식당을 찾아가 음식문화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담았다. 이렇게 모아진 원곡동 이미지들은 인터-캐리커처에서 얻어진 원곡동 사람들의 초상화들과 함께 8월 10일 영상으로 편집되어 리트머스에서 전시하였다.

인터-파티 (Inter-Party)

이주민이 주체가 되고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작가들이 그들을 도와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소규모 파티를 통하여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계기를 마련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2009년 6월 10일 리트머스에서 '인터뷰 인 원곡동' 전시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인터-파티는 인도네시아 밴드 《DEVISA BAND와 한국 밴드 '푼돈들'이 교체 출연하며 전체적인 파티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와 인근에 있는 인도네시아 식당 (R.M PELANGI)을 이원으로 묶어서 진행된 《인터-파티&전시는 원곡동 파티 문화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올라뽕따이

기간: 2009년 6월 - 10월

총괄기획: 유승덕

주관: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지리적 연구와 리서치를 통해 원곡동에 숨어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소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에서 다문화를 접촉, 경험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경없는 마을의 표면적인, 단순한 상업적 모습 이면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경을 물건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집에 숨어있는 물건들과 이야기를 집 밖으로 내어놓고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하나의 장(場)을 벌임으로써 물건의 교류를 통해 다수자와 소수자(이주민), 소수자와 소수자의 소통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여기에서 파생된 교환적 가치가 문화적 소비를 가능케 하는 지점 까지 꿈꾼다.

올라뽕따이 가이드 맵_국경없는 마을 가이드 북+쿠폰 북

올라뽕따이 가이드 맵은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내의 상점 및 기관 위치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며 더불어 원곡동 이야기를 수록하여 페스티벌 참여자로 하여금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지역을 한층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더불어 음식점 및 클럽 할인 쿠폰을 수록 하여 페스티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책자를 개발한다.

달달한 원곡동 DIY프로그램

생활을 달콤하게 만들어 주는 신통방통한 물건 만들기 기술들. 직접 배워보고 만들어서 나만의 물건 만들기를 통해 소중한 추억도 만들고, 숙달된 손재주는 없어도 통달한 생활의 지혜와 예술적 감각을 뽐내보는 자리.

별빛 속으로 이주민 영화제

별이 밤하늘을 밝히듯이 이주민들의 소망과 일상이 원곡동의 밤하늘을 비춘다. 그 별빛 속으로... 별밤 아래서 즐기는 이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제 및 이주민과 관련한 독립 영화 상영.

밴드 온 더 로드 여행 프로그램

이주 노동자들의 여정과 문화적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주민 아마추어 밴드공연에서 우수한 팀과 함께 하는 국내 여행. 마치 그 옛날 문인들, 화가들이 유람을 떠나는 것처럼, 음악을 매개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이주민 밴드가 국내의 문화, 예술이 넘치는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 속을 여행한다. 그리고 시작되는 새로운 경험과 이야기.

#올라뽕따이 파티 이주민 아마추어 밴드 공연

동호회로 활동하는 이주민 밴드들이 원곡동 곳곳에 있는 클럽에서 하룻밤 난장판을 벌이는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 마치 흥대 앞의 클럽 데이(Club Day)처럼 1일 동안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화 되어 프리마켓에서 통용되는 쿠폰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가장 참여자가 많고, 인기가 많은 밴드에게는 밴드 온 더 로드_여행 프로그램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바벨의 거실 이주민 소장품&인터뷰 전시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는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그 안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 가서 본 실제 거실 풍경과 그 거실에 놓여있는 이주민의 소장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터뷰를 바벨의 탐과 같은 구조물 안에 관람객이 탐을 올라가며 볼 수 있도록 전시한다.

올라뽕따이 프리마켓

이주민들의 집에 있는 특색 있는 물건(도서, 공예품, 옷, 특산물(음식)...)들을 밖으로 내어 놓고 파는 장터. 기본적으로 환전소를 활용하여 프리마켓 안에서는 실제화폐가 아닌 쿠폰형식을 매개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며 이 쿠폰은 또한 바벨의 거실, 이주민 아마추어 밴드 공연, DIY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쓸 수 있다. 2009 원곡동 페스티벌_올라뽕따이의 핵심 프로그램!!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로띠 위에 한국식 카레 밥

기간: 2009년 5월 - 11월

총괄기획: 유승덕

큐레이터: 이기언

참여작가: 김월식 & Sujan Dangol (Nepal), 나현 & Nam Lyana (Russia), 양재혁 & Nakajima Yuta (Japan), 유승연 & Song Wen (China), 윤종필 & Yumi Song (Japan), 이미화 & Jakraphun Thanateeranon (Thailand), 정윤미 & Irem Tok (Turkey), 주희란 & Terra Bajraghosa (Indonesia)

주관: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1 라운드

듀얼게임 방식으로 진행된 2009 리트머스 국제 레지던시프로그램은 8명의 국내작가가 협업 파트너인 국외 작가를 찾아나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출국 전에 미리 정한 협업 작가를 직접 찾아 나서는 작가들과 파트너 작가를 미리 정하지는 못 했지만 이들을 소개해줄 기관을 방문해 작가를 소개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간 국내에서 진행되던 레지던시프로그램의 방식을 전복하고 작가가 직접 국제교류의 전 과정을 체험하는 셀프매니지먼트 방식은 때로는 참여 작가들에게 힘든 과제로 다가 오기도 하였지만 작가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생긴 경험은 작가들의 새로운 창작의 에너지가 되었다.

국외에서의 활동은 낯선 환경과 맞닥트리면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이나 새로운 만남과 관계에서 파생되는 교류의 가능성, 문화적 충돌이 서로 교차되는 지점에서 얻어지는 경험 등이 다양한 기록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8명의 작가들이 8명의 외국작가를 만나고 그곳에서 체류하면서 겪었던 상황들은 천차만별이지만 이 작업의 시발점들은 국내로까지 연결되어 안산 원곡동에서 작업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로 묶여지면서 서서히 혹은 즉자적으로 이들의 작업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

2 라운드

1 라운드 프로그램이 국내작가의 외국방문으로 시작되었다면 2 라운드 프로그램은 외국작가들의 입국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들의 거주지이자 작업공간이기도 한 원곡동은 우리에게 낯선 환경일지 모르지만 대다수 동남아시아 국적의 작가들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 이런 지역적 특성은 작가들의 개인 창작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곳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던 지역축제(국경없는마을 클럽데이)와도 연계하여 작업을 진행 했다. 이러한 활동은 작업실 밖으로 나온 예술행위가 지역적 문맥 안에서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이자 리트머스 레지던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입국 후에 한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협업작가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를 작업의 형태로 가시화시키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나타난 협업의 결과물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내외를 오가면서 이루어졌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작가들의 향후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리라 본다.

국내 레지던시 프로그램: IR-인터커넥팅로드

기간: 2010년 5월 - 11월

총괄기획: 유승덕

참여작가: 김은형, 최정우, 박승훈, 이종균, 금혜원, 송수영, 오미경

매칭 비평가: 김진희, 이아영, 채은영, 현지연

한글로 동일하게 표기되는 커넥팅로드가 가진 두 가지 영어단어 connecting rod와 connecting road가 가진 뜻을 모두 내포하는 인터커넥팅프로그램은 공장지대인 반월·시화공단과 다문화지대인 원곡동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전형 다른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을 연결하는 connecting rod와 두개의 거점을 연결하는 connecting road가 가지는 의미가 반영된 인터커넥팅로드 프로그램은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키워드이다. 안산시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서로 다른 두 지역(반월·시화공단,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을 작가들의 창작실험의 대상지로 삼는 본 프로그램은 창작공간 위주의 기존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지양하고 지역이 가진 독특한 문화, 역사, 지리적 환경 자체를 작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창작활동으로 연결하는 실험적인 과정과 태도의 생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정된 레지던스 공간 안이 아닌 이 공간이 인접해 있는 지역 전반을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활동 영역으로 아우르는 예술실험은 필연적으로 작가들에게는 창작 영역의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모티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IR-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1_빨래터 2010

주말이면 많은 이주민이 운집하는 원곡동 외국인센터 야외공간에서 축제 형으로 진행될 워크숍으로 참여 작가들의 창작퍼포먼스, 다국적요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예술가들의 창작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주제: 김은형 작가의 퍼포먼스 '빨래터 2010'
- 대상: 원곡동 주민
- 일시: 2010년 8월 15일(일요일) 오후 3시-5시
- 장소: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만남의 광장
- 내용: 현대인의 삶은 각자의 사적 공간, 즉 집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할 수 있게 생활구조가 점차 변모되면서 특정한 연결고리 없이는 이웃과 교제를 나누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이에 과거, 지극히 사적인 속옷 등을 비롯한 빨래감들을 집안에서 집밖으로 갖고 나와 이웃과 빨래를 매개로 대화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었던 과거 여인네들의 '빨래터'란 장소에 주목했다. 원곡동 만남의광장에서의 '빨래터'라는 장치와 이 안에서 벌어지는 빨래라는 행위를 통해 지역민들과의 국경을 허물고 소통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IR-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2_퍼포먼스 1분

- 주제: 김은형 작가의 퍼포먼스 '1분'
- 참여작가: 라우 혹 싱(홍콩), 야스민 자한(방글라데시아), 코타 타케우치(일본), 로사낙 오스태드(이란), 윌리엄 슈(타이완&뉴린랜드)
- 일시: 2010년 9월 3일(금요일) 오후 3시-5시
- 장소: 원곡동 국경없는마을 일대
- 내용: 초기 원곡동은 반월공단의 근로자 거주지로 시작하였지만 한국 사회의 변화와 경제 발전에 힘입어 반월공단에 필요한 이주 노동자들을 들여왔으며 냉전체제 붕괴 후 중국, 러시아와 수교하였고 해외 동포

의 국국과 정착 속에서 원곡동이 생성되었다. 그 후 이 지역엔 더 많고 다양한 외국인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이제는 내국인 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 현상에 따라 원곡동에는 다양한 이주민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변화는 예술가들이 이 지역을 연구하기 위해 모여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원곡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여는 외부 사람들과의 사이의 틈을 부각시킨다. 본 프로젝트는 원곡동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되었던 퍼포먼스(빨래터2010)를 통해 얻게 된 내용들을 텍스트로 만들어 현재 원곡동을 연구 중인 다섯명의 외국인 작가들과 그 텍스트를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며 원곡동 거리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행위는 현재 원곡동에 활보 중인 외부인(우리)의 모습을 담는다.

IR-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3_국경없는레시피

- 주제: 다국적 요리 퍼포먼스 '국경없는 레시피'
- 일시: 2010년 9월 18일(토요일) 오후 3시-6시
- 장소: 안산 외국인주민센터 광장
- 내용: 주말이면 많은 이주민이 운집하는 원곡동 외국인센터 야외공간에서 축제 형으로 진행된 창작 워크숍으로 국내 및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를 비롯해 리트머스와 연계하고 있는 작가들과 이주민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내는 구적불면의 창작요리 퍼포먼스로 여기서 만들어진 음식은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지역인과 이곳을 방문한 이주민 및 내국인과 함께 나누며, 음식을 매개로 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참여자
 - # 국내 레지던시 작가: 김은형, 최정우, 박승훈, 이종균, 김혜원, 송수영, 오미경
 - # 국제 레지던시 작가: 라우 후 싱, 해니슨(홍콩), 야스민 자한(방글라데시아), 코타 타케우치(일본), 로사낙 오스태드(이란), 윌리엄 슈(타이완&뉴질랜드), 가누 구룽(네팔), 녹 민 티 웬 (베트남), 뤼우 루산 (중국)
 - # 리트머스 작가: 현다민, 정재민, 정찬미, 주희란
 - # 이주민 참여자: 타티아나 스트로에바(러시아), 바스리 가나(인도네시아), 아민 루바디(인도네시아), 아릴 인드라 (인도네시아)

IR-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_국경없는뮤직

- 주제: 사운드 퍼포먼스 '국경없는뮤직'
- 일시: 2010년 9월 18일(토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 내용: 다국적 요리퍼포먼스에 이어 2부 순서로 리트머스 갤러리에서 진행된 퍼포먼스 그룹 킹오브더아트 의 사운드 퍼포먼스 '국경없는뮤직'은 주변의 환경, 분위기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과 사운드 콘트롤러에 의해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음원의 배열을 통해 참여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 사운드에 의해 현장에서 시시각각 만들어지는 분위기는 즉석에서 또 다시 퍼포머의 사운드 컴포지션에 반영되면서 비선형적이면서도 인터랙티브한 연결고리를 이어나간다. 여러 필터들을 통해 실재하지 않는 다양한 패턴들의 소리들은 퍼포먼의 손길에 의해 제거되거나 추가되어지며 하나의 하모니가 만들어 지는데, 하지만 이 하모니의 실체에 대해서 퍼포머는 '개밥, 되지쌈밥 등 먹다 남은 음식들을 마구 뒤섞어 놓은 것들이 썩어서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이 뒤섞인 것들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이 잘 발효되어 거름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과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 이라고 부연한다.

국내 레지던시 프로그램: 원곡동 레시피

기간: 2010년 5월 - 11월

총괄기획: 유승덕

참여작가: 라우 후 싱, 해니슨(홍콩), 야스민 자한(방글라데시아), 코타 타케우치(일본), 로사낙 오스테드(이란), 윌리엄 슈(타이완&뉴질랜드), 가누 구룽(네팔), 녹 민 티 웬 (베트남), 튀우 루산 (중국)

매칭 비평가: 김진희, 이아영, 채은영, 현지연

2010년 리트머스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인 '원곡동 레시피'는 조리법이라는 레시피의 의미를 창작의 영역까지 확장시켜 원곡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재료 삼아 작가 개인의 작업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5가지 레시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레시피 1: 작가 & 청중_작가와와의 대화

- 일시: 2010년 8월 13일, 9월 17일
- 내용: 입주작가들의 전작과 더불어 레지던시 활동 계획과 입주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활동을 내·외빈을 초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작가와의 대화를 가졌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한 작가들의 활동이 문화 생산과 미술계 담론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하는 주용한 일정이다.

레시피 2: 작가 & 작가 창작 워크숍 "Get Green the world"

- 주제: 방글라데시 작가 야스민 자한의 퍼포먼스 "GET GREEN THE WORLD"
- 내용: 야스민은 특유의 여성적 시선과 기법의 작업들을 통해 사회적 이슈들에 개입하고, 그 이슈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작업 해왔다. 이번 레지던시 기간 동안 작가는 원곡동에서 지나치게 소비되고 있는 비닐봉투, 그리고 거리 구석에 쌓여 있는 쓰레기봉투 더미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서 제 3세계 지역의 쓰레기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비닐 소재의 검은 드레스를 입고 거리에서 행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한번 쓰고 버려지는 비닐봉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이에 대한 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일깨움과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번 퍼포먼스를 하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 주제: 라우 후 싱, 해니슨 (홍콩) & 오사낙 오스테드 (이란) 작가의 "정원과 차 퍼포먼스"
- 내용: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 라우 후 싱, 해니슨과 오사낙 오스테드의 창작퍼포먼스가 원곡동 만남의 광장에서 열렸다. 해니슨 작가는 평상과 접목한 중국정원을 만들어 이 위에 돌과 달, 바람, 식물, 물 등을 설치하고, 로사낙 작가는 이 만들어진 평상 위에서 여러 종류의 차와 여러 문구를 그려 넣은 찻잔을 준비해 이 평상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다. 두 작가는 자신들의 진행해오고 있는 작업인 '평상'과 '차'라는 개념을 매개로 지역의 공공장소에서의 '사람(지역민)'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한 예술로서 일종의 말걸기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 주제: 타이완&뉴질랜드 작가 윌리엄 슈의 퍼포먼스 "원곡동에서의 향수의 노래"
- 내용: 윌리엄 슈는 이주 노동자들의 고향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들을 수집했다. 이 수집된 노래들은 작가가 원곡동 거리 일대로 휴대용 스테레오를 가져가는 퍼포먼스를 통해 재생된다. 퍼포먼스 진행시간은 노래 목차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 주제: 홍콩 작가 라우 후 싱, 해니슨의 퍼포먼스 "당신과 나에게 큰 웃음을 줄 수 있나요?"
- 내용: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 해니슨의 퍼포먼스가 결과보고전시 오픈 이후인 20일 지하철 4호선 안에서 벌어졌다. 작가는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지하철 안에서 겪은 '상행위'라는 사람을 약간 당황스럽고 불

편하게 만드는 에피소드를 작업으로 발전시킨다. 작가는 '당신과 나에게 큰 웃음을 줄 수 있나요?'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검 박스를 제작하고 이를 지하철 승객에게 건네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놀라움과 동시에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했다.

레시피 3: 작가 & 지역민_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국경없는레시피

- 주제: 다국적 요리 퍼포먼스 '국경없는 레시피'
- 일시: 2010년 9월 18일(토요일) 오후 3시-6시
- 장소: 안산 외국인주민센터 광장
- 내용: 주말이면 많은 이주민이 운집하는 원곡동 외국인센터 야외공간에서 축제 형으로 진행된 창작 워크숍으로 국내 및 국제 레지던시 입주작가를 비롯해 리트머스와 연계하고 있는 작가들과 이주민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내는 구적불면의 창작요리 퍼포먼스로 여기서 만들어진 음식은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지역인과 이곳을 방문한 이주민 및 내국인과 함께 나누며, 음식을 매개로 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참여자
 - # 국내 레지던시 작가: 김은형, 최정우, 박승훈, 이종균, 금혜원, 송수영, 오미경
 - # 국제 레지던시 작가: 라우 후 싱, 해니슨(홍콩), 야스민 자한(방글라데시아), 코타 타케우치(일본), 로사낙 오스태드(이란), 윌리엄 슈(타이완&뉴린랜드), 가누 구룽(네팔), 녹 민 티 웬 (베트남), 뤼우 루산 (중국)
 - # 리트머스 작가: 현다민, 정재민, 정찬미, 주희란
 - # 이주민 참여자: 타티아나 스트로예바(러시아), 바스리 가나(인도네시아), 아민 루바디(인도네시아), 아릴 인드라 (인도네시아)

국경없는뮤직

- 주제: 사운드 퍼포먼스 '국경없는뮤직'
- 일시: 2010년 9월 18일(토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 내용: 다국적 요리퍼포먼스에 이어 2부 순서로 리트머스 갤러리에서 진행된 퍼포먼스 그룹 킹오브더아트 의 사운드 퍼포먼스 '국경없는뮤직'은 주변의 환경, 분위기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과 사운드 콘트롤러에 의해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음원의 배열을 통해 참여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 사운드에 의해 현장에서 시시각각 만들어지는 분위기는 즉석에서 또 다시 퍼포머의 사운드 컴포지션에 반영되면서 비선형적이면서도 인터랙티브한 연결고리를 이어나간다. 여러 필터들을 통해 실재하지 않는 다양한 패턴들의 소리들은 퍼포먼의 손길에 의해 제거되거나 추가되어지며 하나의 하모니가 만들어 지는데, 하지만 이 하모니의 실체에 대해서 퍼포머는 '개밥, 되지쌌밥 등 먹다 남은 음식들을 마구 뒤섞어 놓은 것들이 썩어서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이 뒤섞인 것들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이 잘 발효되어 거름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과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 이라고 부연한다.

레시피 4: 작가 & 비평가_비평가매칭프로그램

입주 작가 2인당 1명의 젊은 비평가를 매칭시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작가와 비평가 사이에 토론과 담론이 생산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하여 작가들은 자신들의 창작활동을 이론적으로 정리할 기회를 마련하고 젊은 비평가들에게는 현장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동시대 예술활동을 체험하고 다양한 담론이 생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참여작가 & 매칭비평가

녹민티웬 (베트남) - 김진희: 녹민티웬이 보여준 '중첩된 기억'에 대해
코타 타케우치(일본) - 김진희: 오해와 배움들_코타 타케우치의 <Illegal Trash Bag>
가누 구룽(네팔) - 이아영: 다문화에 대한 가누의 판타지
야스민 자한(방글라데시아): 여성의 몸으로 지각하고, 여성의 몸으로 이야기하기
리우 루산(중국) & 윌리엄 슈(타이완+뉴질랜드) - 채은영: 소통과 불통사이에서 어슬렁거리기
라우 훅 싱, 해니슨(홍콩) - 현지연: 비유토피아적 유토피아-해니슨 리우의 중국식 정원
로샤낙 오스타드(이란) - 현지연: 혼성의 문화를 은유하는 방법(을 기호의 가시성에 의존하지 않고 찾아내기)

레시피 5: 작가 & 작품_결과보고전시

- 내용: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동안 스튜디오에 머물면서 작업하는 정주개념이 아닌 공동 스튜디오 (안산 외국인주민센터 유휴공간 활용)를 플랫폼으로 삼아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입주작가 스스로가 찬아다니며 접촉하고 경험하는 이동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결과보고전시는 경제활동을 위해 국경을 넘어 철새처럼 이동해온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의 삶의 현장인 원곡동이란 문맥을 창작 활동을 위해 아시아 각국에서 이동해온 8명의 작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食·嗅·景 ·냄새로 보는 원곡동 이미지

기간: 2010년 05월 1일 - 8월 22일

총괄기획: 유승덕

공동작업 참여작가: 주희란, 김수경, 이민, 유승덕

규모: 480x382cm

재료: 린넨천, 2개의 영상(LCD모니터)

안산시 원곡동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약 5만 명가량의 외국인이 모여살고 있는 국내 최대의 외국인 밀집지역이다. 특히 주말이면 이 지역에 일일 6만 명가량의 외국인이 자국의 향수를 찾아 이곳에 모여든다. 리틀아시아 혹은 국경없는마을로도 불리는 이곳 거리를 들어서면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과 이들의 서로 다른 문화들이 작은 지역 안에서 동시에 보고 느낄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원곡동의 다문화적인 색채를 후각을 통해 이야기하려 한다. 경기도미술관 안에 설치될 리트머스 파빌리온(pavilion) 안에는 천정에서 바닥까지 드리워진 린넨 천에 원곡동에서 채집된 20여 종류의 각기 다른 식자재의 냄새를 입혀 이 천 사이를 스치며 지나가는 관객들의 후각을 통해 원곡동의 잡종교배된 문화와 정서를 단일한 공간에서 총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고자 한다.